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하기락의아나키즘론

구승회

구승회
하기락의아나키즘론

kr.theanarchistlibrary.org

차례

1. 글머리에	3
2. 만남	4
3. 하기락과 그시대	5
4. 1930 — 40 년대한국아나키즘과하기락	7
5. 해방후의활동과 ‘자주인철학’의정초	9
6. 하기락의 책만들기	12
7. 결별: 새시대의아나키즘을위하여	15
8. 결어	18

8. 결어

글을 마감하면서 1993년 여름 하회마을에서 있었던 학술대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해 8월 14~15일 양일간 전국의 아나키즘 연구자 48명이 참가하여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논문 발표와 회의로 진행된 모임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특히 밤에 있었던 모닥불파티는 참석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런데 2일째 하오편회에 즈음하여 선생께서는 필자를 부르더니, “이보게, 구동지! 폐회에 앞서 ‘결정문’을 채택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깜짝 놀라 “아니 무슨 결정문을 말씀하십니까?”라고 반문했고, 참석자들과의 협의한 후에 결정하겠노라고 얼버무렸다. 결국 선생의 “결정문 채택” 주장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그때 필자는 사실 ‘결정문’이라는 말에 〈한국 아나키스트 하회 선언〉쯤으로 생각했고, 학술 행사에서 그런 발상을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었으며, “지금 이 독립 운동하던 시대인가? 무슨 결정문을 채택한단 말인가!”라고 불편하게 생각했다. 물론 지난 50년간 한국에서 아나키즘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강력한 실천적 무기로 인식되어 왔으며, 또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선생의 발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신세대 아나키스트로서는 ‘당혹스러움’ 그 것이었다. 그 후에도 이 이야기는 종종 에피소드로 회자되었다. 필자로서는 당시 하교수가 거창한 ‘정치적 선언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기록’으로 ‘흔적’을 남기는 뜻이었을 걸로 이해하고 싶다.

1. 글머리에

글쓰기에 앞서 필자는 두 가지 제한 사항을 먼저 말하고 싶다. 우선 이는 문에 사람에 대한 연구라는 사실이다. 더구나 그 목소리가 아직 역사로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연구이다. 사람이면 누구든 자신의 다양한 관심과 활동, 요구와 주장으로 자신의 일생을 채운다. 이 중에는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요구와 주장들도 있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질적인 것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저편의 이익관심 interests 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도 자신의 이해의 지평위에 그려진 사람만 알면서도 우리는 잘 안다고 말한다. 이는 어쩌면 해석학적 딜레마 hermeneutische Dilemma 인지도 모르겠다.

필자는 허유(虛有 - 고故하기락교수의호) 하기락교수의 아나키즘 사상을 조금 알고 있을 뿐, 그의 다른 관심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는 독자가 하기락교수의 아나키즘 사상에 대한 필자의 서술이 그의 다른 분야에 대한 이익관심과 상충하거나 모순된다고 보여지더라도 필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해명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해 두고자 한다. 예를 들면 ‘니콜라이 하르트만의 인식론’에 대한 하교수의 해석이 아나키즘 연구에 어떤 영향으로 남아 있으며,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든지...

두 번째로 이 논문은 하교수의 철학적인 변에 대한 시비를 가리기 위함이지 아니라, 우리에게 ‘불길한 미완’으로 보이는 한 인간의 사상적 면모를 해명하려는 것이므로 철학적 엄밀성보다는 역사적 사실 관계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다소나마 철학적 글쓰기에 익숙한 필자로서는 이 글이 아무래도 논문답지 않게 될 거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중시한다 하더라도, 필자로서는 단순히 사료에 대한 역사술자의 평가만 고집하는 실증적인 사가가 되고 싶지는 않다. 역사적 사실은 현재와 부단히 대화하고 있으며, 그 대화 사이를 이어주는 논리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깊이 추적해보고자 한다. 더욱이 연구 대상인 하교수는 ‘아나키즘적 실천’의 문제에 깊숙이 개입해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 실천과의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역사적 해석’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고자 노력할 것이다.

‘사실史實과 현재와의 관계지음’은 어떤 경우에도 개자가 필요한 법인데, 필자는 그런 중개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필자의 ‘사적인담화’가 개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이 글은 기왕의 논문쓰기 형식을 탈피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2. 만남

필자는 1993년 5월대구신천동에있던회의실에서필자와박연규씨를중심으로결성한《대구아나키즘연구회(이하‘대구아연’으로칭한다)》¹의창립월례발표회에서〈맑스인가, 바쿠닌인가?— 제 1 인터내셔널과유렵노동운동의이념투쟁〉²라는논문을발표하였다. 필자의기억으로는그날 15명정도의회원이참석하였는데, 검정색뽕모자가바깥을비껴맨채, 약간굵은지팡이를짚고들어서는노인이있었다. 그가바로하기락교수였다. 필자는그날하기락교수를처음대면했다. 82(1993년당시)세의노인이라기에는너무나건강해보였다.

발표가끝나고토론시간이되자, 하교수는누구보다도많은말을했다. 젊은토론자들을제치고혼자서논증하고, 결론내리고하였다. 지금고백하건대성미급한나로서는주리가틀리는자리였다. 그후로도필자는하교수가등장하는자리에선언제나비슷한경험을했다. 1995년 8월서울동숭동국민문화연구소에서개최된에서는폐회시간을넘기고사회자의제지에도불구하고계속이야기하자, 듣다못한노철학자유명종원광대학교 명예교수는“저영감이아무래도노망이들었어! 그만하고내려와!”라고짜증을내기도하였다.

그러나필자는과의인연으로하교수와만나게된것을소중하게생각하며, 개인적으로는한국아나키즘운동사에관한많은살아있는지식을얻게된데감사하는마음은변함이없다. 필자는독일유학시절직업공동체운동에참여하여공부한적이있었는데, 당시에는마르크스주의를연구하는학도였기때문에, 아나키즘이라면조직적인혁명운동에걸림돌이되는‘불평하는자유주의자’정도로이해하고있던나로서는, 독일의직능공동체운동의이념적기초가아나키즘임을알고많이놀랐던적이있다. 아나키즘에대한이런인연으로귀국후아나키즘연구단체를만들자는제의에세게동조하게되었다.

하여튼필자가서울로이주하고, 박연규씨가다시미국으로돌아가면서《대구아연》은 1994년여름이후사실상활동중단에들어가게되었다. 하지만하교수는그간 10여회의월례발표회에빠짐없이참석하였으며, 《대구아연》과《부산아연》의등직한중심이였다.

¹ 필자보다는박연규씨가하기락선생으로부터더많은영향을받았던듯싶다. 나는선생으로부터직접를만들라는주문을받은적은없고, 주로박연규씨로부터전해듣는입장이었다. 월례발표에꼭꼭참석한사람은구승희, 김상은, 김진철, 박연규, 송재학, 윤용택, 이강대, 임해수, 정상봉, 조기현, 최찬식, 하기락, 등이었다.

² 이글은나중에구승희/김성국의, 『아나키, 환경, 공동체』, 서울: 모색출판사 1996에수록되었다.

일아침의혁명을위하여’일사분란하게움직이지않는다. 따라서정보화사회에서사회운동은어떤통일적인목표도지향하지않는다. 바로아나키즘의원리이다. 주지하고계시듯이, 아나키즘은중심을전복함으로써하루아침에세상을바꾸려는혁명적방법보다는저변, 주변을허무는다중심적인행위규범을선호한다. 페미니즘운동, 환경·생태운동, 반전·반핵운동, 지역분권주의운동, 평화운동, 소비자운동등신사회운동의다양한스펙트럼은그것을잘말해주고있다. 이제신사회운동을위한사회이론, 그도매상역할은남은‘무정부주의’가아닌‘신아나키즘’이담당해야한다고생각한다. 아나키즘은일원론으로부터‘다원론’으로, 대립과갈등에서‘상호주의’로, 환원주의적사고에서‘반환원주의’로, 경쟁의논리에서‘협동적참여의논리’를표방하고있기때문에, 신사회운동과논리적정합성을갖는다고믿는다.

나는인도주의적아나키즘의한유형으로‘에코아나키즘’을신아나키즘의원류로삼고자한다. 크로포트킨이선언하고있듯이, 아나키즘은사회를배타적인개인들의집합이아니라, 상호협동하는사회적개인들의집합으로이해하고있다. 그래서나는감히“아나키즘의사회조직원리는자본주의의등장과더불어파괴된인간의존재의본질을더욱가까이서바라보게하는우리의존재의고향 Heimat”이라고말하고자한다. 하이데거(M. Heidegger)의멋진부연설명을기억하며, 한마디더첨가하면, ‘고향은실존을그리워하는현존의가상현실’이며, 이는아나키즘을통해복원될수있으며, 복원되어야한다.

우리는이그리움을아나키즘의이상으로실현코자한다. 아마거기에선아침에눕시하고, 오후엔발을갈고, 저녁엔무도회에나가서춤을추고, 늦은밤엔교양있는이웃과철학을토론하는그런곳일것이다. 마르크스가희망했던것과아주똑같이 ... 그러나아나키즘은능력에따라일하고필요에따라분배되는그런공산사회(마르크스)가아니라, 필요한만큼일하고, 일한만큼분배받는‘자유사회’일것이다. 이제나는아나키즘의이론적지평을열어보임으로써생태·환경운동, 공동체운동등신사회운동의이론적동일성을제시하고자한다. 아나키의‘상호부조에의한공산적자유’, ‘권력과위계없음’, ‘폭력의거부’라는대명제는생태·환경의위기시대를사는우리가한번기대어봄직한매력적인담론들을포함하고있다. 후기산업사회의위기증후는허무적인자조와자기파괴적인경향이아니라, 삶에대한강한긍정과주체의의지로써회복될수있으며, 그런방식으로회복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에코아나키즘은‘자본의높은언덕을넘어아나키공동체의건소포박見素包朴마을로들어가려는사람들에게튼튼한이성의지팡이’가될것이다.

무시되고 있다. 개인주의적이나키즘은 고전적인 자유주의의 이념과 흡사한데, 한국에서는 개인주의적이나키즘의 설득력 있는 형이상학적 논변을 무시한다. 사회적이나키즘은 자유, 선, 정의, 의무 등 개인과 도덕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그냥 떠안고 있다. 물론 막스 슈티르너의 극단적으로 이기적인이나키즘이 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가지는 것이지만, 한국이나키즘은 앞으로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갈등을 해소함에 있어서 고드윈식의 절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고는이나키즘이론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고드윈, 슈티르너, 란다우어의이나키즘에 대한 논의를 길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이나키즘을 정치적 기제 mechanism 로 보는 데 반대한다. 최근 들어이나키즘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도 정치적 기제로서가 아니라,이나키즘이 ‘시민공동체적 삶의 원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대의이나키즘은 그런 방향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새로운 시대의이나키즘, 그 대강을 밝히고자 한다:

지금 한국에는 하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그것은이나키즘이라는 유령이다! 이 유령은 그러나 혁명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기증후군’에 시달리는 한국 사회의 지성에 계신 선한 충격과 함께, 하나의 ‘오래된 미래 기획’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세기에 실패한 귀신이 어찌 서지 급덕복잡하고 정보화된 한국 사회를 배회하고 있는가? 산업 사회 초기에 유럽에서 등장한 ‘이나키적인 삶의 양식’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에 고무된 다수의 부르주아지들을 사로잡기에는 분명 역부족이었다. 그래서이나키즘은 우리들의 추억 속에 ‘허무적인 테러나 극단적인 파괴주의’로 각인·인쇄되어 왔다. 추억 속의이나키즘을 우리는 한 동안 ‘무정부주의’라고 불렀었다.

시민 사회를 허물고 등장한 근대 국민 국가에서 권력과 지배권은 무한히 집중되고 있다. 권력과 폭력 수단의 집중은 자본주의적 ‘세계 기획’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의 정교한 조직 이론과 혁명 이론이 ‘자본주의적 세계 기획’에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카운터파트 counterpart 였다. 자본의 팽창과 함께 증가하는 산업 예비군들, 그들의 혁명 역량에 기대를 걸고 마르크스도, 엥겔스도, 레닌도 내일 당장 밋밋한 혁명의 아침이 오리라고 믿었다. 사실 19세기 유럽 노동 운동의 성실한 서기書記역을 자임했던 칼 마르크스는 그가 프롤레타리아의 혁명 역량을 너무 높게 평가했던 죄밖에 없다. 노동자 해방 운동과 결부되어 나타난 유럽 사회주의 운동의 100년 생애는 그러나 우리에게 혁명의 찬란한 아침이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줄 뿐이다.

이제 세상은 바뀌었고, 현대 사회에서 권력과 폭력의 독점은 ‘카리스마적 권위’나 ‘완력’, 혹은 ‘공장 굴뚝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네트워크로부터 나온다. 정보화 사회에서 중앙 집중적 거대 권력은 급속하게 분산되고 있다. 수십만, 수백만 이하의 깃발 아래 모여 오직 하나의 목표 — ‘내

3. 하기락과 그 시대

헤겔의 말대로 “철학의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시대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의 사상의 전모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알고 있듯이 하교수는 태어나서부터 장년이 될 때까지 일제의 식민지 지배라는 암울한 시기를 살았다. 그의 철학은 이 시기에 형성되었고, 시대의 요구와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그러므로 그의 시대를 돌이켜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허유하기락교수는 1912년 1월 26일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당본리에서 출생하여 1997년 2월 3일 향년 86세를 일기로 대구시 수성구 만촌 2동 990-73번지 자택에서 타계하였다. 하교수는 열여덟 살이던 1929년 경성 제2고등보통학교(지금의 경북고전신) 3학년이었다. 그 해 광주에서 학생 사건이 일어났고, 서울에서도 고보를 중심으로 학생 운동이 일어났다. 하교수는 제2고보의 시위에서 주동자로 찍혀 퇴학당하였다. 그 후 1년 동안 서울과 안의 안義를 왔다 갔다 하며 낭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1년 후에 중앙고보 2학년에 편입, 1933년 졸업하였다. 그 고보를 졸업하였을 때가 세家勢는 말 아니었다. 하는 수 없이 낙향하여 2년 동안 농사일을 하게 된다. 1930년대에는 이미 국내에도 여러이나키즘 단체가 만들어지고, 아나키스트들에 대한 일본의 탄압도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까지 그가 아나키스트임을 내보인 흔적은 없다. 고보를 졸업한 지 십년 정년이 되었고, 부모들의 강압에 못이겨 서둘러 장가를 들게 되었다. 그러나 하교수는 “시골에서 박혀 있기는 너무 억울해서”³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된다. 안의 출신의 젊은 아나키스트 하기락은 1935년부터 37년까지 일본 상지대학 예과를 마친 후에, 와세다 대학 문학부 철학과에 입학한다. 일본 유학은 하교수가이나키즘으로의 길을 접어드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유학 시절 내내이나키즘에 대한 관심으로 일관했고, 결국 일생을 “아나키스트라는 이념적 표식”과 함께 했다.

1939년 12월 와세다 대학 조선인 동창회 석상에서 그는 다른 아나키스트 동지들과 더불어 일제의 식민지 정책, 특히 창씨개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검속檢束되어 3개월간의 구류처분을 받는다. 기록에 의하면 “하기락은 작년 1월 거행의 동경 각 대학 전문학교 조선 학생 연합 졸업생 송별회에서 당국으로부터 조선 말 사용을 금지시킨 것을 통절하게 불만을 품고, 동지를 규합하여 이반대 운동을 획책하고 작년 6월 중淀橋區戸塚町 소재喫茶店松月堂에서 당시 와세다 대학 문학부 청강생(경성이화여전교원) 한치진(韓稚振)의 환영회를 빙자하여 와세다 대학 문학부 생김언병, 이지인(李趾麟), 정인옥, 윤정병을 권유 합동하고, 이상의 문제를 토의한 결과 조선 민족 문화 옹호의 견지로부터 조선어 사용 금지 문제에 관한 학생의 여론을 환기시킬 것이라 하고, 그 후 검거에 이르기

³ 김경길, 「월간조선」, 인터뷰 기사, 1993년 6월호, 476-481쪽.

까지재삼민족문화옹호철학연구를빙자하여동지규합에노력하여온사실이판명되었다. 그리고경시청에서는본인등에대하여엄중히훈계한결과각성한바있으므로일단석방하였다.”⁴

대학을졸업한후(1941년)그는황해도재령에있는재령상업고등학교에교직자리를얻게되었다. 그러나한학기를마치고대학시절의아나키스트운동경력이문제가되어쫓겨나게된다. 하교수는당시를이렇게회고한다: “자주인사상으로봐도일제가보면불온한것이고, 무정부주의자라고봐도역시불온분자이니까봐줄턱이없지...”⁵ 그는다시고향으로내려와서농사꾼이된다. 두어해뒤에해방이되었고, 다시황해도학교에복직을생각하기도했으나, 이미그때는 38 선으로분단되어마음대로되지않았다. 그래서그는부산에서새로만들어진「자유민보(이신문은미군정당시경남도지사김철수가창간하였다)」라는신문의주필로취직을한다. 당시의시대상황이그랬듯이그는 2년을채우지못하고다시대구로옮긴다. 1947년《대구문리과대학(나중에대구대학으로이름을바꾸고청구대학과통합하여현재의영남대학으로된다)》에잠시자리를잡았다가 1953년고병간박사(당시는전쟁중이라, 임시수도가부산에있었고, 고병간의대학장은문교부차관을겸하고있었다)의초빙으로경북대학교문리과대학철학과에자리를잡았다. 그로부터 18년간경북대학교철학과에재직하게된다.

하교수는 1947년에재직할당시유림(柳林) 선생이조직한《독립노동당》에가담하여기관지「독립노동신문」을편집한적이있고, 경북대학교를퇴임한직후인 1972년에는《민주통일당》을주도하고있던정치인양일동씨의요청으로 1년간정책위의장직을맡은적이있다. 선생의생애에서현실정치가가장깊이발을들여놓았던시기이다. 양일동씨와는일본유학시절부터절친한사이였다.⁶ 그러나하교수의현실정치참여는오래가지못했다. 1974년그는계명대학교로옮겨학문활동을계속한다. 교수로서의그의학문활동은계명대학교철학과에서마친다. 정년퇴임후에도하교수는효성카톨릭대학(현대구가톨릭대학교-편집자주) 등에서계속강의를하였으며, 활발한저술활동도계속하였다. 1963년선생은《한국칸트학회》를창립하였으며, 이는현재의전국규모의《대한철학회》로발전하였다. 1947년부터 1997년임종까지 40년간의학문활동을통

⁴ 독립운동사자료집 13, 『학생독립운동사』, 1178-1185면, 인용은 『한국아나키즘운동사』, 대구: 형설출판사 1978, 428쪽.

⁵ 김정길, 「월간조선」, 인터뷰기사, 1993년 6월호, 477쪽.

⁶ 양일동은박정희의 5·16 쿠데타정권에의해 10여년간정치규제에서뒤편에있었다. 1972년해금된그는 2월정화암, 하기락등과규합하여“자주·민주·통일”의원칙하에《민주통일당》을조직하였다. 당위원장은양일동이었다. 그러나이당은다시 10년이못되어전두환군사정권에의해해해된다.

데(이을규번역본에는〈아나키즘의도덕〉이들어있다) 중요한논문은삭제하고있다.

필자가지나간이미오래된책의표절여부를시시콜콜따지는것은두가지의미를함축하고있다: 첫째; 하교수의이런‘책만들기’가혹시철학자로서의학문적엄밀성을훼손하지나않을지염려하는것이고, 둘째로는후세대아나키즘연구자들이하교수가이룩한연구성과를뛰어넘어새지평을열기위해서는먼저간이의오류를반복하지말자는자성의의미도담겨있다. 하여간하교수의아나키즘관련저서와역서를보면서지난 60년간한국아나키즘의질곡의역사를보는것같아아쉬웠다. 하지만지난 60년간한국아나키즘의살아있는역사로자리매김되어온하교수의위상은확고하다하겠다. 필자의비판은그의아나키즘운동사와이념사에서그가차지하는위상과역할을훼손하려는의도는아니다.

7. 결별: 새시대의아나키즘을위하여

우리는하교수의자주인철학을넘어서야한다. 그것은시대에뒤진것이어서가 아니라, 하교수의아나키즘이안고있는이론적한계때문이다. 아나키즘은역사속에서한번도주류에속해본적이없다. 유럽에서아나키즘은 19세기사회개혁운동의한영역으로등장하였다. 이는노동운동과사회주의운동과밀접한연관을가지고있다. 일제하한국아나키스트들은이런사회관계적맥락을무시하고, 아나키즘을민족해방운동에적용하였으며, 해방후에는현실정치의힘의관계내에서자신들의위치를정하고자했다. 그러나일제하에서의민족해방투쟁은일정한성과를거두었다고평가할수있는면이있지만, 해방후의정치적행위들은번번이실패하였다. 더욱문제인것은그실패가마치훈장인양기록되어“운동사”라는이름을붙이고있다는점이다. 물론실패의기록도성공사례만큼이나중요하다. 그러나‘기록으로남기기위한실패’는용납할수없는것이다. 필자는한국아나키즘운동사를보면서무수히많은‘기록남기기행위들’에실망하지않을수없었다.

또한가치한국아나키즘의편향성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 윌리엄고드윈이나막스슈티르너, 크로포트킨에게큰영향을주었던란다우어의개인의적아나키즘사상은전혀언급되지않고있으며, 대부분의아나키스트들은사회적아나키즘²⁶만을논의해왔다. 사회를단순히개인의집합으로보는원자론적관점(슈티르너), 그리고미국아나키즘의한흐름으로소로우(H.D. Thoreau), 휘트먼(W. Whitman), 워렌의논의는완전히

²⁶ 상호부조적아나키즘(mutualist anarchism), 집단적아나키즘(collectivist anarchism), 공산주의적(공동체적) 아나키즘(communist anarchism), 아나르코생디칼리즘(anarcho-sindicalism) 등을들수있다.

롯하여, 양일동 (梁一東), 양희석 (梁熙錫), 최갑룡 (崔甲龍), 이정규 (李丁奎), 이을규 (李乙奎), 신기초 (申基礎), 이홍근 (李弘根), 김재현 (金在炫) 등이었다.

『운동사』의 이런 문명은 이 책의 아나키즘 관련 저작이 전무하던 시대 에나왔다는 점과, 중요한 사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16 년만에 재판을 하는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 싶다. 책은 스스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철학이 그 이론을 회색에 회색을 덧칠하면 삶의 모습은 이 미 늙은 것이며, 젊어지지 않는다 (Wenn die Philosophie ihr Grau in Grau malt, dann ist eine Gestalt des Lebens alt geworden, und mit Grau in Grau läßt sie sich nicht verjüngen, sondern nur erkennen)”²³는 괴테를 변형시킨 헤겔의 현학적인 표현을 떠올리게 된다.

피터 크로포트킨 (표트르 알렉세예비치 크로포트킨을 가리킨다. 편집자 주) 의 『근대 과학과 아나키즘』은 1973 년 이을규 선생이 창문각에서 출판하였다. 이 책의 편집 역시 하기락 선생이 편집을 맡았고, 〈편집 후기〉에서 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역자 회관 (晦觀) 이을규 선생은 우리나라의 아나키즘 운동의 개척자요 지도자 중의 한 분이다. 편집자는 일찍이 중학 시절에 선생의 온후한 인격과 고매한 사상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항상 흠모의 정을 잃지 않았다. … 편자 (하기락) 는 고인 (이을규) 의 사위 趙漢膺 동지와 함께 선생에게서 입은 은의 恩誼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편집과 교정에 입했다.”²⁴

그런데 이 책 역시 또 다른 문명으로 부활한다. 1993 년 부산의 신명출판사에서 『근대 과학과 아나키즘』²⁵이라는 제목으로 재출간한 것이다. 물론 역자는 하기락이다. “고매한 사상에 깊은 인상을 받아 중학 시절부터 흠모해 온 선생”의 번역원고를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것 말고, 전혀 새롭게 다듬은 흔적도 없이 자기 이름으로 재출간한 것이다.

이 책이 출간될 무렵 필자는 박연규 씨로부터 푸념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하교수가 번역서를 내는데, 샘돌고프 (Sam Dolgoff) 의 논문 한 편을 번역해 달라”고 주문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박연규 씨는 뉴욕 시립 대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잠시 대구에 머물 때였다. 기이하게도 한 권의 책에 두 사람의 글이 들어있는 이번 역서는 출간 5 년밖에 안 되었음에도 지금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잊혀진 문건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기왕 재출간하려면 크로포트킨의 주요 논문인 〈아나키즘의 도덕〉을 포함시켰어야 할 텐

해 선생은 많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다. 하교수는 한국의 제 1 세대 철학자로 서 철학적 엄밀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회 운동가로서의 열정을 쏟았다.

4. 1930 — 40 년대 한국 아나키즘과 하기락

앞에서 필자는 하교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를 토대로 필자는 30-40 년대 한국 아나키즘의 이론적 지평과 하교수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30 년대 이후 국내에서의 아나키즘 연구와 실천적 활동에 국한해서 다루려는 이유는 첫째; 1920 년대 한국 내에서의 아나키즘 연구 및 실천 투쟁은 몇몇의 선구자를 제외하고는 사회주의라는 큰 틀 내에서 공산주의와 혼재하고 있었으며, 아나키스트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공산주의와 아나키즘에 대한 분명한 구분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다.⁷ 둘째; 하교수와 관련된 논의만이 본고의 주제가므로 선생이 아나키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시기가 30 년대 이후라 여겨지기 때문이다.⁸

먼저 1930 년대 한국 내에 명백히 아나키즘 이론에 근거한 연구 단체 혹은 항일 무장 투쟁 조직이 있었느냐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30 년대는 일제의 만주 정벌로 조선 반도는 일제의 병참기지가 되고 있었다. 조선 내의 모든 사회 운동은 극도의 탄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시기까지 한국 아나키스트들은 더러는 옥사하고, 많은 선구자들이 감옥에 있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여순 감옥에, 이정규, 이을규 형제와 유림 (柳林) 은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되어 왔다. 《이천 자유회》, 《창원 흑우 연맹》, 《제주도 우리계》, 《진우 연맹》, 《조선 무정부주의 자연맹》 등에 가담한 많은 투사들이 투옥되어 국내의 아나키스트 진영은 전멸한 상태였다.

광주 학생 사건이 아나키스트들에 의한 항일 운동은 아니었지만, 하교수가 아나키즘 운동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1929 년 서울 제 2 고보 소 요사 태이다. 18 세의 2 학년이던 하기락은 하공현 (河公鉉) 과 함께 제 2 고보에서 광주 학생 운동의 여세를 몰아 서울에서 학생 운동을 계승하고자 선두에 나섰다. 그로 인하여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는 아나키즘과는 무관한 사건이지만, 신채호의 〈조선 혁명 선언〉, 또 일본에서의 박열의 활동 (박열은 1923 년 동경 지진 당시 “불령사 不逞社 대역 사건”으로 복역 중이었다) 에 관해 소상히 알고 있었던 그는 이미 아나키즘적 저항의 정신이 깃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1939 년 일본 유학 시절에도 비슷한 사건을

²³ G.W.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Suhrkamp Werke Bd.7, Vorrede S.28.

²⁴ 피터 크로포트킨/이을규 역, 『현대 과학과 아나키즘』, 서울: 창문각 1973, 218 쪽.

²⁵ 피터 크로포트킨/하기락 역, 『근대 과학과 아나키즘』, 부산: 신명출판사 1993. 이 책에는 샘돌고프/박연규 역, 『현대 산업 사회와 아나키즘』이라는 30 쪽 정도의 논문이 함께 실려 있다.

⁷ 이에 대해서는 오정환, 〈1920 년대 초기 국내 사회주의 수용기의 아나키즘적 경향에 관한 일고찰〉, 자유 사회 연구 회 편, 『아나키즘 연구』, 1 호 (1995), 57-81 쪽 참조.

⁸ 1925 년 9 월에 대구에서 결성된 〈진우 연맹〉은 명백히 국내 최초의 아나키즘 연구 단체이다. 1928 년의 “진주 아나키스트 사건”, 29 년의 《마산 아나키스트 그룹》과 《창원 흑우 연맹》 등 20 년대에 일어난 큰 크고 작은 아나키즘 관련 사건은 선생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겪게되는데, 앞에서소상히밝힌바와같이 1939년 12월와세다대학에서있었던“조선인졸업생총별회사건”이다. 이시기에한국에는이미프루동, 바쿠닌, 크로포트킨등고전적아나키즘이론가들의문건이번역소개되고있었다. 한글로번역되지않은문헌들은일본어로번역되었으며, 대부분의지식인들은이들문헌을접할수있었다. 아나키즘연구는철학자나 실천가들보다는, 주로문학자들, 문예운동가들사이에서일어났다. 권구현(權九玄) 등쟁쟁한아나키즘이론가들이등장하면서문학에서아나키즘과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논쟁이시작되었다. 소위아나키즘문학과부르주아문학간의논쟁이그것이다.

한국에서프로문학의대두는 1920년대중반이다.⁹ 아나키즘문학은당시까지만하더라도프로레타리아문예운동내에속해있었다. 박영희, 한설야, 임화윤기정을중심으로한프로문학이강해지자, 이향, 홍의등은아나키즘문학이론으로이에저항하면서논쟁은시작된다. 권구현은프로문예 = 마르크스주의라는등식을거부하면서“프로문예중에아나키즘문예와볼셰비즘문예의대립을예상해볼수있다. 공산주의자가자신의인생관내지는사회관에입각하여무산계급문예를수립할수있다면, 아나키스트역시그의사상적견지에서무산계급예술론을수립할수있을것”¹⁰이라고지적한다. 권구현은아무리무산계급문예라하더라도, 예술활동이예술의본질을벗어나는것이어서는안되며, 특히사회혁명의선전도구로전락하는것에반발한것이다. “아나키스트는결코집단을무시하지않는다… 그러나아나키스트는자연적인법칙에순응하는개성의자유를고조하며볼셰비키들처럼무산계급을의식적으로외세의강권에의하여볼셰비즘의범주내로도입코자하지않는다. 가장자연스러운자유연합사회를… 형성코자함이아나키스트의최대안목이다.”¹¹

프로문학에대항한권구현의아나키즘문학론은한국의아나키즘이론을한층정교하게하는데기여했다. 넓은의미로는사회주의와아나키즘, 좁게는볼셰비즘과아나키즘이론간의구분이불분명하던시기에권구현은볼셰비즘역시억압적국가기구를폐지하는것이아니라, 부르주아에의한지배를프로레타리아에의한지배로바꾸는것에불과하다는사실을간파함으로써“자연법칙에순응하는개성의자유를강조하여이에따른자유연합사회를건설하는것”¹²이아나키즘의최대목표라고규정하게된다.

기락에게넘겨서조선무정부주의운동을집필토록하였다. 1978년 3월 1일하기락은이운동사전편(8.15 이전)을탈고하였다. 하기락은같은달 5일정화암, 최갑룡, 고성희이지할, 김한수, 박기성등을청운아파트 1동 307호자택으로초청하고, 『조선무정부주의운동사전편』의탈고脫稿를보고했다. 회합한동지들은이를접수하고본편찬위원회에서직접발행키로합의했다.”²¹

이상의표현으로보아하교수에게넘어간원고는‘관련자료’수준이아니라, “정리된원고철”이며, “수고手稿노트”이다. 1978년 9월 23일에서개최된출판기념회에서최갑룡의경과보고에도잘드러나고있다: “원고가완결되기까지 1976년 7월부터정화암, 최갑룡이경기도수원근교신갈기도원에서침식을함께하며(원고정리를) 감행했습니다. 1977년 봄에는서대문구역촌동여관방에서(원고) 정리를마치고같은해 7월에하기락에게일체수집된(원고)를넘기고편집을부탁했습니다.”²² 이말로미루어보건대원고는최갑룡과정화암이주도적으로정리하였고, 상당히정리된원고를하기락에넘긴것같다. 이런문제를제쳐놓고라도『탈환』이『운동사』에비해더세련된역사적서술방식을취하고있는것도, 새로운사실이추가된것도아니라는점이다.

문제는여기서그치지않는다. 일단한번표절한책을선생은다시한번제목을바꿔『자기를해방하려는백성들의의지』로재탕하고있다. 다시말하면최초의원고가누구로부터나왔건간에, 분명한것은하교수개인의원고가아니었다는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는그원고를토대로세권의책을생산해냈다. 10여년전부터아나키즘에관심가져온필자로서도이미그당시부터이저작의이런운명을알고있었다. 하물며동년배동지들이몰랐을리없다. 선생은왜이런얼굴없는책을만들었는지, 또이책과관련된당사자들이동일한내용의책을두권더퍼내는것에동의해주었는지필자로서는헤아리기어렵다.

『한국아나키즘운동사』의〈편찬후기〉에는“이책은개인의사적저작이아니라, 운동에참여했던여러동지들의공동작업으로추진되었다”고명시되어있고, 또책의저자역시편으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서문〉은하기락교수가쓰고있다. 편찬위원회는소위원회를만들었고, 여러차례회의를했다. 그러나그명단에는하기락이라는이름은한번도등장하지않는다. 더욱이 100쪽이넘는〈서장〉은분명하교수가집필한것인데, 『운동사』에는어울리지않는‘이념사’를다루고있다. 이〈서장〉은그자체로서작은‘아나키즘이념사’인데, 왜이문건이『운동사』에포함되었느냐이다. 편집위원회의에참석한사람들은위원장정화암(鄭華岩)을비

⁹ 1925년의결성이그시발이다.
¹⁰ 조선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아나키즘운동사 — 전편, 민족해방투쟁』, 대구: 형설출판사 1978, 203 쪽.
¹¹ 위와같은책, 208 쪽.
¹² 위와같은책, 212 쪽.

²¹ 조선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아나키즘운동사 — 전편, 민족해방투쟁』, 대구: 형설출판사 1978, 459 쪽. 이기록은위원장정화암의명의로되어있다.
²² 최갑룡, 『어느혁명가의일생』, 대구: 이문출판사 1995, 67 쪽. 괄호안은필자추가.

인정적세리머니를즐거워했다. 이제하교수가제창한자주인철학은 2세대신아나키스트들에의해이론적으로새롭게단장되어야하며, 공적영역의논변이아니라, 생활세계의의사소통적담론으로자리잡아야할것이다.

6. 하기락의 책만들기

책은각자의운명을타고난다(habent sua fata libelli). 하교수가 펴낸책은여러모로기이한운명을타고났다. 본연구를위해문헌을섭렵하면서필자는하교수의거의모든저작이뒤죽박죽으로섞여있고, 같은내용이계속반복되고있어서혼란스러움을금치못하였다. 『탈환』(1985)의〈후기〉는『자기를해방하려는백성들의의지』(1993)에반복된다. 8년전의〈후기〉를왜다시전재하는지, 그간아무런상황변화도없었다는것인지의아스럽다. 그럼에도전재했음을밝히는문구는어디에도없다. 하교수는『탈환』을펴내면서“1978년『한국아나키즘운동사』전편을내면서‘후편도계속간행코자한다’고예고해놓고아직까지실행에옮기지 못하고있으므로… 우선잠정적으로운동사전체를오늘에이르기까지간추린약사로서이에대충코자한다.”¹⁸고적고있다. 탈환은《한국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가약속한후편을만들지 못하고있으므로자기가개인적으로후편을펴낸다는뜻이다. 그런데내용은 7년전에나온『운동사』와대동소이하다. 엄밀한의미에서『운동사』는《한국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¹⁹의저작이다.

정화암, 최갑룡등이하기락에게넘긴자료가어느정도정리된것이었느냐, 아니면신문스크랩, 녹취한테이프정도였다면하교수의 1985년판『탈환』은『운동사』를표절한것은아니라는주장이가능하다. 그런데만약 1977년 7월하교수에게넘어간원고가상당히진척된수고手稿의상태였다면표절이라는주장도가능하다.

여기서이책이만들어지기까지의내막을잠시살펴보자: 사실『한국아나키즘운동사』를편찬하기로한것은정화암의생각이었고, 출간 15년전에이미계획된것이였다. 1963년 12월 22일돈암동진흥장에서열린송년회에서결의된사항이였다. 1967년 1월제 8차회의에이르기까지하기락의이름은등장하지않는다.²⁰ “1977년여름신문자료를수집한세권의노트와최갑룡이정리한세편의‘자료정리원고철’, 기타를모두하

¹⁸ 하기락, 『탈환』, 대구: 형설출판사, 3 쪽.

¹⁹ 저작자는《조선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인데책의제목은『한국아나키즘운동사』이다. 이런통일되지않은용어를쓴것으로보아서원저작자들은‘무정부주의’를, 하기락은‘아나키즘’을주장한것같다.

²⁰ 최갑룡, 『어느혁명가의일생』, 대구: 이문출판사 1995, 64-66 쪽.

5. 해방후의활동과 ‘자주인철학’의정초

하교수가아나키즘사상에경도된것은아마도고향안의의사상적분위기와무관치않은것같다. 당시안의에는이름난아나키스트들이많았다. 1926년대구의진우연맹사건의주모자들도대부분이안의출신이였다(신재모, 하종진, 하경상, 김정근등이이고장출신이다). 나이로보면 7~8년위인선배사회운동가들로부터선생은자연스럽게아나키즘사상에경도되게되었을것이다. 그러나본격적으로아나키즘을표방한시기는해방을전후한시기가아닌가싶다. 여기서는하교수가아나키즘을자신의‘자주인철학’으로체화體化해가는과정을살펴보고자한다.

먼저아나키즘의전통을간략하게살펴보자: 아나키즘은매우광범위하다. 본고에서는하는아나키즘은프랑스혁명후프랑스를중심으로나타난사회사상을일컫는다. 정통파아나키즘은윌리엄고드윈(W. Godwin)의『정치적정의』(1793)를시작으로프루동, 막스슈티르너(M. Stirner), 구스타프란다우어(G. Landauer, 1870-1919), 바쿠닌, 크로포트킨, 톨스토이, 워렌(Josiah Warren), 터커(Benjamin Tucker)로이어지는사상적전통을가리키는말로이해하고자한다. 여기에는개인의적경향과사회적경향이혼재하고는있지만, 그것에서로단절된전통으로부터나온것이아니라, 연속적인발전의산물이라는점에서하나의전통으로이해할수있다.

이주류아나키즘사상은 (1) 개인의무제약적인자유보장, (2) 이를위해무국가사회의실현, (3) 인류의행복과번영을위해개인의창의성과자발성의최대한보장, (4) 국가로부터비롯되는모든제도와위계질서의부정, (5) 개인의자발적도덕성에대한믿음, (6) 그러므로인간의자유와평등을제한하는세가지최악인국가, 종교, 경제제도를거부하는것등으로요약할수있다. 이중에서도국가가제 1의타도대상인바, 아나키즘에의하면국가는 ① 원래가약자를착취하려는강자의욕구의표현이므로, 인민전체의복지를위해존재하는것이아니라, 인민의지배를효율적으로집행하기위한강제적실체이다. ② 국가는필연적으로계급성에기초하여각종제도와법규를만들고, 이를통해생존권과욕망을통제하는착취적수단이된다. ③ 국가의존재는최고의인륜성을실현하는현실태(헤겔의생각처럼)가아니라, 인민의자발적도덕을파괴하는파괴적실체라는것이다.

아나키스트들은국가의본질이좋은것이냐나쁜것이냐를놓고논쟁한것이아니라, 국가권력을탈취할것이냐, 파괴할것이냐를놓고싸웠다(가장대표적인예가마르크스와바쿠닌간의논쟁이다). 이처럼아나키즘과마르크스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는그근본부터가달랐음에도초기아나키스트들은물론이고, 마르크스주의자들사이에서도아나키즘이사회주의의아류로인식되면서그독자적인사상적기반을갖추는데어려움이많

왔고, 아나키즘이 역사적으로 “잊혀진 몽상가의 추억”으로 인식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하기락의 아나키즘은 이런 전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가 살던 시대의 요구에 따라 수정, 변형된 아나키즘 사상을 발전시켜왔다. 필자는 이를 ‘자주인철학’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자주인 libertarian’이라 부른다. 권위나 군력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려는 사람을 권위주의자 Authoritarian 라 한다. 이 두 종류의 인간은 서로 용납이 안 된다. 권위주의자를 혐오, 배격하고 자주인다운 생활을 관철하려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을 아나키스트라 한다.”¹³ 필자는 하기락의 아나키즘을 “자주인철학”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아나키스트들 사이에서 ‘자주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2년 《한국 자주인 연맹》의 창립과 더불어서이다. “우리는 각자 자기를 주재하는 자주인이다. 우리는 자주인의 자유의지로 연합한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코자 한다. … 모든 인간의 주권은 평등하다. 이 권리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와 다스려지는 자로 인간을 구별하는 일체의 정치적 관념을 부정한다.”¹⁴ 당시 자주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은 아마도 유신이라는 현실정치적 조건 때문이었을 것이다. 스스로를 아나키스트라 부르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자주인 사상은 1987년 제 4차 대회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우리는 다수자의 노동성과를 소수자의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만 드는 현재의 경제체제의 개혁을 촉구한다. 이는 수탈된 것의 탈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 위계제도적 권력 독선은 산업의 발전을 유효하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실증을 보여주었다. 산업의 운영은 직업별, 직장별 산업종사자들의 지역평의회와 이들이 서로 연합한 중앙협의회에 의해 담당되어야 한다. … 근로대중의 산업의 자주관리를 요구한다.” 선생이 발표한 이 개회사는 다분히 초기 공산주의적 생각과 일치하는 점이 많이 있다. 20세기 유럽 노동운동의 핵심적인 쟁점은 ‘공장평의회’와 ‘산업의 자주관리 Autonomie der Industrie’였다. 이 개회사에도 똑같은 말이 나온다. 자주인은 그러나 공산주의자와 달리 ‘국유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사회화 Sozialisierung’를 주장한다.

또한 하교수의 어떤 글에도 ‘군비 축소’ 주장이 빠진 적이 없다. 60년대 이후 선생은 자주인의 철학에 평화주의를 포함시킨다. 이는 1988년 10월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학술회의”로 이어진다. 투자한 열정에 비하면 실패한 행사라는 평이 지배적이지만, 세계적인 아나키스트들이 한국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선생의 추진력이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것이다. 발제강연에

¹³ 조오지 우드코크/하기락 옮김, 『아나키즘 — 사상편』, 대구: 형설출판사 1981, 번역자서문.

¹⁴ 하기락, 『자기를 해방하려는 백성들의 의지』, 부산: 신명출판사 1993, 강령. 353-4쪽.

서그는 “나”라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지녔다면, ‘너’라는 인간도 또한 인간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자이다. 여기에 있어서 비로소 각인이 만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만인이 각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아나키’사회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인간 중심 사상은 곧 사회주의로 통하는 길이다. 평등은 사회적 정의의 필수 조건이고, 사회적 정의에 있어서 비로소 만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¹⁵ 이 글에서도 ‘군비 축소’와 ‘노동자에 의한 산업의 자주관리’도 거론된다.

하교수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한 마지막 글인 〈역사의 발전과 인간의 해방〉¹⁶에서도 동일한 주제로 결론을 삼는다: 자주인은 “지역과 직장이 구성원 상호간의 자유의사와 자유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치되는 사회를 추구한다. 이바탕위에서 … 인간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각종의 자율적 협회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라 전체는 이와 같은 모든 지역, 직장 및 각종 협회의 자율적 자유 연합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는 사회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그럴 적에 우리는 나라 전체의 일을 조사, 통계, 계획하는 사무기관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통치 기관이 아니라, 백성들 자신의 자치적 사무기관이다.”¹⁷ 그는 아나키즘의 자치 원리를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다. 제레미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국가의 강제는 사회의 제 3 영역(공적 영역)의 강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미 하교수의 이 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건강한 사회는 지역, 직장, 협회가 자율적으로 연합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자율적 자치 기관으로 변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자주인철학은 크로포트킨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자주인 사상은 민족주의 이념과 결부되어 항일 무장 투쟁의 이념이 되었다. 한국 아나키즘이 강한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게 된 것은 명백히 일제의 식민지 지배 때문일 것이다. 하교수의 자주인철학 역시 민족주의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는 무정부주의 운동에 강력한 이념적 공감대였다. 그러나 민족주의 때문에 한국 아나키즘은 해방 후에도 발목이 잡혀 있었다. 필자는 하교수의 자주인철학은 그것이 민족주의적 배후에 의존하는 한 아나키즘 본래의 의도와는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이론으로서 아나키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아나키스트는 조직을 거부한다고 즐겨 말한다. 그러나 해방 후 한국 아나키스트들은 두 사람이 모이면 조직을 만들고, 회장이라는 이름을 감추고 ‘대표간사’를 선출하고, 강령을 채택하고, 선언문을 낭독하는 계몽주의적

¹⁵ 위와 같은 책, 399-400 쪽.

¹⁶ 〈역사의 발전과 인간의 해방〉. 이 글은 1995년 5월 13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광복 50주년 기념 학술 발표회에서 기조발표한 원고임.

¹⁷ 하기락, 〈조국통일발의문〉, 별책본 91쪽. 이런 표현은 이미 『한국 아나키즘 운동사』의 〈서문〉에도 나온다.